

세계도시 정책동향

Global Urban
Policy Trend

596호
2026. 1. 26.

도심 공원 재생

심층 리포트 세대 융합형 공원 재생 정책: 글로벌 사례 분석과 서울형 이행 전략

정책 돋보기 **캘거리시** | 기억을 품은 치매 환자 친화 통합 공원
키갈리시 | 도시 인프라를 넘어 '함께 돌보는' 르완다 우무간다
바르셀로나시 | 마싸나 정원에 장애 아동 위한 포용적 공원 착공
보스턴시 | 기후 회복력과 포용성을 결합한 보스턴 워터프런트 공원
포산시 | 자원순환센터를 어린이 휴식터로, 구이청어린이공원
델리 NCT | 지역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공원
바르셀로나시 | 도시 한복판의 작은 농장, 시립 텃밭 네트워크

정책 뉴스 피닉스시 | 뉴욕시

세대 융합형 공원 재생 정책: 글로벌 사례 분석과 서울형 이행 전략

김원주(서울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 연구위원)

인구 구조의 격변과 도시 공원의 새로운 책무

- 서울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두 가지 거대한 인구학적 파도, 즉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트윈 시프트(twin shift)에 직면해 있음. 2026년경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가 해체되고 있음
- 이 현상에 대응하여, 도시 공원을 단순한 물리적 녹지공간에서 ‘세대 간 소통과 사회적 회복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공원 재생 및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함
-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진 도시들은 공원의 기능을 ‘수동적 휴식’에서 ‘능동적 참여와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전환하고 있음. 미국의 맥킨리 공원과 콩그레스 예비뉴 공원은 ‘완전한 포용’을 목표로 장애와 연령의 장벽을 제거한 하드웨어에 치료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결합함. 독일의 크산텐 쿠어파크는 지역의 역사성과 ‘크나이프(Kneipp)’ 건강 요법을 통합하여 세대가 공유하는 웰니스 거점을 구축하였으며, 일본의 게이한나 기념공원은 ‘사토야마(마을 숲)’라는 전통적 경관을 매개로 세대 간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적 융합을 시도함. 싱가포르의 캄퐁 애드머럴티는 주거, 의료, 공원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고밀도 도시에서의 세대 공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세레스(CERES)와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는 민관 협력과 시민 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적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 세대 간 융합과 활력의 그린허브(green hub)로서 공원을 재생하기 위해 ① 전면적 유니버설 디자인과 가변형 공간을 도입하는 하드웨어 전략, ② 세대 간 호혜적 교류와 시민 주도 활동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전략, ③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웨어(smartware) 전략, ④ 민관 협력 거버넌스(Seoul Park

Conservancy)와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KPI)를 도입하는 시스템웨어(systemware) 전략 도입을 제안함

글로벌 트렌드: '분절'에서 '통합'으로

- ◎ 초기 세대 통합 공원의 개념이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용 벤치를 한 공간에 배치하는 '물리적 공존'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세대 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화학적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는 '따로 또 같이'를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공통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로를 돌보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성공적인 세대 통합 공원의 기저에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철학이 깔려 있음. 이는 장애 유무나 연령,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정보 접근성(인지적 포용)과 사회적 접근성(심리적 포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됨.¹ 미국의 포용적 놀이터의 확산은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고 있음

북미권 사례: '완전한 포용'과 '치료적 기능'의 결합

맥킨리 공원, 미국

- ◎ 미국 미시간주 프레이저(Fraser)시에 위치한 맥킨리 배리어프리 공원(McKinley Barrier-Free Park)은 면적이 약 60,700m²(약 15에이커) 규모인데, 방치된 유휴 부지를 지역 주민과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여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임
- ◎ 공원 전체를 관통하는 순환 산책로(Walk & Roll)는 휠체어, 유모차, 보행 보조기 사용자가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이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이동 능력이 다른 세대가 나란히 걸으며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임
- ◎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하는 감각 통합 놀이 시설은 아동의 발달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들의 감각 재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패딩 처리된 바닥재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그네, 모래놀이 테이블 등은 '놀이'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을 적극적으로

1 Explore Inclusive Design Principles for Playgrounds - Landscape Structures, <https://www.playlsi.com/en/playground-planning-tools/inclusive-play/design-guide/>

[그림 1] 맥킨리 배리어프리 공원 시설물



출처: 서울시, 2024, 서울시 BF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포용함²

- ◎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식물을 만지고 가꿀 수 있는 높이 조절 화단과 미로 정원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도 원에 활동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세대 간 원에 지식 공유의 장이 됨³
- ◎ 지역 시니어 센터와 연계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놀이 활동과 시니어의 휴식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이벤트를 개최함⁴
- ◎ ‘프레이저 퍼스트 부스터 클럽(Fraser First Booster Club)’이라는 주민 주도 비영리 단체가 기획부터 모금, 설계 참여까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함. 이는 관 주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한 핵심 요인임⁵

² McKinley Barrier Free Park - Reviews, Recreation Centers in Fraser Town, Macomb County (MI) - Wheree, <https://mckinley-barrier-free-park.wheree.com/>

³ McKinley Barrier-Free Park, Fraser First Booster Club, <https://fraserfirst.com/mckinley-barrier-free-park/>

⁴ Senior Activity Center, Fraser, MI - Official Website, <https://www.frasercitymi.gov/672/Senior-Activity-Center>

⁵ Fraser's McKinley Barrier-Free Park and Playground for People of ALL Abilities, <https://cea.mml.org/?cea=frasers-mckinley-barrier-free-park-playground-people-abilities>

■ **콩그레스 애비뉴 배리어프리 공원, 미국**

- 플로리다주 보이nton 비치에 위치한 콩그레스 애비뉴 배리어프리 공원(Congress Avenue Barrier Free Park)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을 ‘야외 헬스케어 센터’로 기능하도록 설계함
-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자연과 열린 공간 속에서 무장애 놀이 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함
- 17종의 야외 운동 기구 중 5종을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하여 설치함.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년이 한 공간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장면을 연출함
- 어린이 놀이터와 성인용 피트니스 존을 인접 배치하되,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하여 조부모가 운동하면서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상호 돌봄형’ 공간 구조를 구현함. 습지 산책로와 피크닉 파빌리온은 운동 후 세대가 함께 휴식하는 완충 공간 역할을 함⁶
- 인근의 ‘치료 레크리에이션 복합단지’와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물리치료사가 지도하는

[그림 2] 콩그레스 애비뉴 배리어프리 공원



출처: City of Boynton Beach Homepage

⁶ Congress Avenue Barrier Free Park, South Florida Finds, <https://www.southfloridafinds.com/park/fl/palm-beach/boynton-beach/congress-avenue-barrier-free-park.html>

야외 재활 수업, 시니어를 위한 요가 및 타이치 클래스 등을 운영함. 이는 공원을 의료 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킴⁷

- ◎ ‘매직 휠(Magic Wheels)’과 같은 장애 인식 개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임⁸

유럽권 사례: 역사적 맥락과 웰니스의 융합

크산텐의 쿠어파크, 독일

- ◎ 독일 크산텐의 쿠어파크(Kurpark Xanten)는 면적 약 140,000m² 규모이며, 성곽 도시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치유 요법인 ‘크나이프(Kneipp)’를 테마로 공원을 재생한 사례임
- ◎ 성곽 주변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매스틱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휠체어와 유모차, 보행

[그림 3] 크산텐의 쿠어파크 시설물



출처: 서울시, 2024, 서울시 BF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⁷ Parks & Recreation Adults and Seniors, Palm Beach County, <https://discover.pbc.gov/parks/pages/cp-adults-and-seniors.aspx>

⁸ EVENTS | Boyntonfoundation, Greater Boynton Beach Foundation, <https://www.boyntonbeachfoundation.com/events>

보조기의 접근성을 완벽하게 확보함. 이는 역사 유적지에 대한 접근권을 이동 약자에
게까지 확장한 사례임

- 물, 식물, 운동, 영양, 균형의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크나이프 시설(차가운 물 웅덩
이, 맨발 지압로 등)을 공원 곳곳에 배치함. 이 시설은 노인들에게는 혈액 순환을 돕는
치료 공간이자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되어 세대 간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유도함⁹
- 벤치의 팔걸이를 한쪽에만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옮겨 앉을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높이의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세밀하게 적용함
- 단순한 휴식을 넘어 '만남의 공원'을 표방하며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 강좌, 야
외 콘서트, 성곽 투어 등을 운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
고 있음¹⁰

■ 런던의 놀이 전략(London's Play Strategy), 영국

- 런던은 개별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놀이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런던의 「이웃 형성: 놀이와 비공식적 레크리에이션 보조 계획 지침(Shaping Neigh-
bourhoods: Play and Informal Recreation SPG)」은 놀이 공간이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유하는 비공식적 레크리에이션 공간임을 명시함¹¹
- 웸블던 파크(Wimbledon Park)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Queen Elizabeth Olympic
Park)는 자연 지형을 활용한 모험 놀이터와 가족 단위 휴게 공간을 결합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도전하고 노는 경험을 제공함

■ 아시아권 사례: 고밀도 도시의 수직적 통합과 문화적 융합

■ 교토의 게이한나 기념공원, 일본

- 교토의 게이한나 기념공원(Keihanna Commemorative Park)은 교토부 세이카정에 있

9 Kneipp Therapy in Austria, <https://www.austria.info/en-us/activities/kneipp-therapy/>

10 Xanten - A Park of Encounter, Landezine International Landscape Award LILA, <https://landezine-award.com/xanten-a-park-of-encounter/>

11 London plan 2011 implementation framework, shaping neighbourhoods: play and informal recreation - Greater London Authority, September 2012,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osd31_shaping_neighbourhoods_play_and_informal_recreation_spg_high_res_7_0.pdf

[그림 4] 교토의 게이한나 기념공원



출처: 서울시, 2024, 서울시 BF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으며, 면적 약 241,000m² 규모이고, 일본 전통의 ‘사토야마(마을 숲)’ 개념을 현대 공원에 도입하여 세대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함

- ◎ 무료 개방 구역인 ‘히로바(광장)’는 대형 놀이기구와 잔디밭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유료 구역인 ‘수경원(Suikai-en)’은 전통 정원과 관월교(Kangetsukyo Bridge)로 중장년층을 유인함. 중요한 점은 이 두 공간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완만한 경사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도 수경원의 입체적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¹²
- ◎ 계단식 논을 형상화한 광장 디자인이나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회랑은 노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함¹³
- ◎ 매년 가을 열리는 달 구경(Moon Viewing) 축제는 단순한 경관 감상을 넘어 차 시음회, 전통 음악 공연, 천체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통 분모를 제공함¹⁴
- ◎ 반딧불이 관찰, 숲 체험 등은 지역 노인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자연 지식을

¹² Clapham Common Playground, <https://www.youtube.com/watch?v=4nZMVBgAWes>

¹³ Autumn Near Kyoto: Experience Fall in Nature and Food Outside the City, <https://voyapon.com/autumn-near-kyoto-keihanna-suigetsu/>

¹⁴ Well-being | けいはんな万博, <https://keihannaexpo.org/en/festival2/>

전수하는 세대 교류의 장으로 활용됨¹⁵

■ 캉퐁 애드머럴티(Kampung Admiralty), Singapore

- 싱가포르의 ‘수직적 캉퐁(Vertical Kampung)’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주거, 복지, 공원을 단일 건축물 내에 통합한 혁신적 모델임
- 저층부는 커뮤니티 광장과 상업 시설, 중층부는 의료 센터, 상층부는 노인용 공공 임대 주택과 옥상 공원(community park)으로 구성되어 있음. 옥상 공원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핵심 공간임¹⁶
- 어린이집과 노인 활동 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이 등하원 길이나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
- 어린이집 아동과 노인들이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예술 공예, 원예 활동 등의 세대 간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운영됨. 이는 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윈윈(win-win) 전략임¹⁷

[그림 5] 캉퐁 애드머럴티



출처: <https://www.archdaily.com/904646/kampung-admiralty-woha/>

■ KPMG 웰니스 가든, 싱가포르

- 싱가포르 이스트 코스트 파크 내 KPMG 웰니스 가든(KPMG Wellness Garden)은 치료 정원(therapeutic garden)과 자연 놀이 정원(nature playgarden)을 결합함

15 Keihanna Commemorative Park, Sightseeing Spots, Another Kyoto Official Travel Guide, <https://www.kyototourism.org/en/sightseeing/439/>

16 Kampung Admiralty / WOHA | ArchDaily, <https://www.archdaily.com/904646/kampung-admiralty-woha>

17 Kampung Admiralty: Building for All Ages, <https://knowledge.csc.gov.sg/digital-issue-04/kampung-admiralty-building-for-all-ages/>

[그림 6] KPMG 웰니스 가든



자연 놀이 정원

자연 피트니스 공간

출처: Factsheet-A-KMPG-Wellness-Garden.pdf

- ◎ 치매 노인을 위한 원예 치료 공간 바로 옆에 아이들을 위한 자연 놀이터를 배치하여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 활동을 즐기면서도 서로를 인지하고 보살필 수 있는 구조를 만들¹⁸

오세아니아권 사례: 사회적 기업과 참여형 거버넌스

세레스 커뮤니티 환경공원, 오스트레일리아

- ◎ 쓰레기 매립지를 주민들의 힘으로 재생시킨 세레스 커뮤니티 환경공원(CERES Community Environment Park)은 환경 교육과 사회적 기업이 결합한 자립형 공원 운영의 모델임
- ◎ 공원 내에서 유기농 카페, 묘목장, 자전거 수리점 등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원 유지 관리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¹⁹
- ◎ 커뮤니티 가든: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공동 텃밭을 가꾸며 식문화를 공유하고 노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함.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과정임²⁰

¹⁸ Factsheet A - Features of the KPMG Wellness Garden,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g/pdf/2021/11/Factsheet-A-KMPG-Wellness-Garden.pdf>

¹⁹ Community Garden back after pandemic - Ceres Courier, <https://www.cerescourier.com/news/local/community-garden-back-after-pandemic/>

²⁰ CERES Community Environment Park, https://en.wikipedia.org/wiki/CERES_Community_Environment_Park

해외 사례의 성공 요인을 통한 핵심 코드

세대 간 소통형 공원 재생을 위한 4가지 핵심 코드

- 위의 해외 사례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있음
- 경계 허물기: 연령별로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 대신에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된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함
- 목적의 공유: 건강, 윌레, 문화, 예술 등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테마를 부여함
- 포용적 디테일: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세심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신체적 약자의 심리적 장벽까지 제거함
- 주민 주도 거버넌스: 관 주도의 관리를 넘어 시민이 운영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서울시 공원의 현주소는 단절과 소외

- 서울시 공원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불균형과 기능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 공원의 약 69%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현대적인 이용 패턴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은 핫플레이스로, 노인은 동네 공원으로 활동 반경이 양극화되어 있으며, 같은 공원 내에서도 경로당과 놀이터, 운동 시설이 단절되어 있어 교류가 발생하지 않음
- 시민 설문조사 결과, 공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조용한 다수(26.0%)’가 존재하며, 이들은 공원 재생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50.9%)’과 ‘다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33.7%)’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

서울형 세대 융합 공원 재생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 글로벌 선진 사례와 서울의 특성을 종합하여 ‘융합과 활력의 그린허브(green hub of fusion and vitality)’라는 비전하에 다음의 4대 핵심 전략을 제안함

모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 공간

- 물리적 환경은 세대 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며 특정 세대를 배제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보편적 설계와 유연한 공간 활용이 핵심임
- 서울형 무장애 표준 확립: 맥킨리 공원과 크산텐 쿠퍼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

원 진입부부터 내부 산책로, 화장실, 휴게 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 도입함. 휠체어와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는 1.8m 이상의 산책로 폭 확보, 모든 단차의 제거, 다양한 신체 조건을 고려한 벤치와 테이블 설치를 의무화함

- ◎ 가변형 다목적 공간: 고정된 시설 위주의 설계를 지양하고, 시간대와 계절, 이용자 그룹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조성함. 평일 오전에는 노인들의 체조 및 재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 오후에는 청년들의 폴리마켓이나 버스킹 공연장, 가족 단위의 피크닉장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잔디 광장이나 가변형 파빌리온을 설치함
- ◎ 세대 공유형 앵커 시설: 싱가포르의 웰니스 가든처럼 노인용 운동 기구와 어린이 놀이터를 인접 배치하여 '상호 돌봄'을 유도함. 특히 서울의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과 노인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유 키친'이나 '바비큐 존'을 도입하여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을 매개로 교류를 촉진함

■ 관계를 잇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

- ◎ 하드웨어만으로는 진정한 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임
- ◎ 디지털 이음 교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 세대가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키오스크, 공원 앱 사용법을 알려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사회적 기여의 효능감을 제공함
- ◎ 생활 기술 워크숍: 은퇴한 시니어 장인이 목공, 원예, 전통 요리 등의 기술을 청년과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세대 간 존중 문화를 형성함
- ◎ 공동 텃밭 프로젝트: 세레스 공원 사례와 같이 노인의 영농 경험과 청년의 트렌디한 감각(플랜테리어 등)을 결합하여 공동 텃밭을 가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수확물은 공유 키친에서 함께 요리하거나 지역 소외 계층에 기부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 ◎ 시민 주도형 운영 인력 양성: 관 주도의 일방적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원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도입함. 지역의 액티브 시니어나 재능 있는 청년들을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하여 공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 세워 줌

■ 기술로 격차를 줄이는 스마트 공원

- ◎ 스마트 기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포용적 스마트 기술: 노년층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글씨, 음성 안내, 심플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가 적용된 스마트 안내판과 키오스크를 설치함
- 콘텐츠 확장 및 AR 도슨트: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생태 도슨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으로 나무나 꽃을 비추면 해설이 나오게 함. 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노인들에게는 손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여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함
- 스마트 건강 관리 및 안전망: IoT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벤치나 운동 기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맥박, 운동량 등)를 체크하고, 낙상 등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관제 센터에 알리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함. 이는 고령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자에게 안심을 줌

■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 공원의 지속 가능성은 안정적인 재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 시스템에 달려 있음
- 서울공원컨서번시 도입: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의 BPC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민간 전문가,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운영 기구를 설립함. 이를 통해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공원 운영을 도모하며, 기업 후원 및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임
- 세대 통합 성과 지표(KPI) 개발: 공원 운영의 성과를 단순히 방문객 수로만 측정하지 않고, ‘세대 간 교류 빈도’, ‘프로그램 만족도’, ‘사회적 고립감 감소율’, ‘참여자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 서울시, 2024, 서울시 BF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 ◎ *Autumn Near Kyoto: Experience Fall in Nature and Food Outside the City*, <https://voyapon.com/autumn-near-kyoto-keihanna-suigetsu/>
- ◎ *CERES Community Environment Park*,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ERES_Community_Environment_Park
- ◎ *Clapham Common Playground*, <https://www.youtube.com/watch?v=4nZMVBgAWes>
- ◎ *Community Garden back after pandemic - Ceres Courier*, <https://www.cerescourier.com/news/local/community-garden-back-after-pandemic/>
- ◎ *Congress Avenue Barrier Free Park*, South Florida Finds, <https://www.southfloridafinds.com/park/fl/palm-beach/boynton-beach/congress-avenue-barrier-free-park.html>
- ◎ *EVENTS | Boyntonfoundation*, Greater Boynton Beach Foundation, <https://www.boyntonbeachfoundation.com/events>
- ◎ *Explore Inclusive Design Principles for Playgrounds - Landscape Structures*, <https://www.playlsi.com/en/playground-planning-tools/inclusive-play/design-guide/>
- ◎ *Factsheet A - Features of the KPMG Wellness Garden*,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g/pdf/2021/11/Factsheet-A-KMPG-Wellness-Garden.pdf>
- ◎ *Fraser's McKinley Barrier-Free Park and Playground for People of ALL Abilities*, <https://cea.mml.org/?cea=frasers-mckinley-barrier-free-park-playground-people-abilities>
- ◎ *Kampung Admiralty / WOHA | ArchDaily*, <https://www.archdaily.com/904646/kampungadmiralty-woha>
- ◎ *Kampung Admiralty: Building for All Ages*, <https://knowledge.csc.gov.sg/digitalissue-04/kampung-admiralty-building-for-all-ages/>
- ◎ *Keibanna Commemorative Park*, Sightseeing Spots, *Another Kyoto Official Travel Guide*, <https://www.kyototourism.org/en/sightseeing/439/>
- ◎ *Kneipp Therapy in Austria*, <https://www.austria.info/en-us/activities/kneipp-therapy/>
- ◎ *London plan 2011 implementation framework, shaping neighbourhoods: play and informal recreation - Greater London Authority*, September 2012,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osd31_shaping_neighbourhoods_play_and_informal_recreation_spg_high_res_7_0.pdf
- ◎ *McKinley Barrier Free Park - Reviews*, Recreation Centers in Fraser Town, Macomb County (MI) - Wheree, <https://mckinley-barrier-free-park.wheree.com/>
- ◎ *McKinley Barrier-Free Park*, Fraser First Booster Club, <https://fraserfirst.com/mckinleybarrier-free-park/>
- ◎ *Parks & Recreation Adults and Seniors*, Palm Beach County, <https://discover.pbc.gov/parks/pages/cp-adults-and-seniors.aspx>
- ◎ *Senior Activity Center*, Fraser, MI - Official Website, <https://www.frasercitymi.gov/672/Senior-Activity-Center>

- ◎ *Well-being* | けいはんな万博, <https://keihannaexpo.org/en/festival2/>
- ◎ *Xanten - A Park of Encounter*, Landezine International Landscape Award LILA, <https://landezine-award.com/xanten-a-park-of-encounter/>



기억을 품은 치매 환자 친화 통합 공원

캐나다 켈거리시 | 장지훈 통신원

캐나다 켈거리시는 고령화 심화, 치매 환자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건강·돌봄·세대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캐나다 최초로 치매 친화 공원을 조성하여 고령 친화 도시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함

치매 환자 친화 공원(Dementia-Inclusive Park) 조성 배경

- ◎ 켈거리 치매 환자는 현재 약 2만 명으로, 2030년에 3만 4,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 기존 공원 시설은 치매 환자의 인지적·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 가족,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야외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
- ◎ 캐나다 도시 중 최초로 켈거리 공원 재단(Parks Foundation)과 켈거리시의 협업으로 마틴 가족 기념 정원을 계획·설계하고 2026년 여름 켈거리 남동부에 마틴 가족 기념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완공될 예정임
 - 설치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기존 공원 활용도가 낮아 재생 필요성이 큼
 - 재단은 2025년 앨버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협회로부터 공원 우수상을 수상함

공원의 주요 시설 특징

- ◎ 치매 환자의 기억과 감각을 위한 감각 기반 설계
 - 향기·색채·질감 중심의 감각 정원(sensory garden): 촉각·청각 자극 요소(바람 소리, 물소리 등)
 - 기억 회상을 돕는 식재의 구성: 과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오브제 사용
- ◎ 치매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동선 구성
 - 완만한 경사로와 순환형 산책로 설치
 - 혼란을 유발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산책로를 조성해 명확한 시야를 확보: 명확한 동선과 반복된 패턴, 혼동을 줄이는 색채 및 사인 시스템을 적용함

- 세대 통합 공간을 중심에 배치함
 - 어린이, 성인, 노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라운지 배치
 - 가족 단위 활동을 고려한 피크닉·쉼터 공간 조성
 - 환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휴식 공간 마련
- 접근성 강화
 - 휠체어·위커·유모차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산책로의 폭을 확보
 - 충분한 휴식 포인트와 그늘 공간을 제공

기대 효과 및 적용 가능성

- 환자에 대한 기대 효과
 - 환자의 야외 활동 증가
 -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
 - 사회적 고립 및 낙인 효과 감소
- 보호자를 비롯한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완화
- 세대 및 이웃 간 교류 증가
 - 가족 단위 활동 증가
 - 주민 참여 기반으로 단순 휴식 공간에서 건강·돌봄·교육·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진화
- 기존 공원 리모델링 방식으로도 적용 가능해 예산 효율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공원 개념도



출처: <https://www.parkstdn.com/dementia-inclusive-park>

- ◎ 국내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 복지관 인근 공원에 적용 가능
 - 센터 프로그램의 야외 확장(산책,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
 - 보호자·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 안전한 이동 동선 및 안내 시스템 구축



도시 인프라를 넘어 ‘함께 돌보는’ 르완다 우무간다

르완다 키갈리시 | 한울 통신원

르완다의 ‘우무간다(Umuganda)’는 한국 새마을운동 정신을 르완다 실정에 맞게 이식하여 제도화한 전 국민 참여형 봉사 제도로, 단순한 국가 재건 도구를 넘어 대도시 키갈리의 공공공간을 상시 관리하는 현대적 거버넌스로 진화함. 특히 개인의 고립도가 심화되는 현대 도시에서 ‘함께 돌보는 문화’를 통해 도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모델로서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

배경: 새마을운동의 르완다식 현지화와 키갈리의 특수성

-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심 환경 악화와 정책 변화를 겪은 키갈리
 - 1994년 대학살 이후 국가 재건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한국의 새마을운동(근면·자조·협동) 정신을 적극 반영하여 법적 의무가 있는 정례 제도로 안착

[그림 1]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키갈리 시내 주요도로



- 마을 단위의 공동 협력을 통해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면 된다’는 사회적 자신감을 고취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
- ◎ 대도시 키갈리에서 우무간다가 특히 중요한 이유
 - 도시 행정 한계 보완: 급격한 도시화로 행정 인력이 닿지 않는 이면도로, 하천 변, 공원 등 도시 사각지대의 청결과 안전을 주민 참여로 상시 유지
 -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구축: ‘비닐봉지 전면 금지’ 정책과 결합한 우무간다는 키갈리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브랜딩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임
 - 도시 공동체 자본 형성: 이주 및 유입 인구가 많아 익명성이 강한 수도 키갈리에서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는 유일한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

주요 내용: 키갈리의 공공공간 돌봄과 주민 참여 시스템

- ◎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례 활동을 통한 도시 환경 정비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08:00~11:00)을 ‘우무간다의 날’로 지정하여 키갈리 전역의 도로, 골목, 공공시설을 정기적으로 정비
 - 우무간다를 기점으로 평소에도 마을 단위의 자율적인 청소 및 정비 활동이 이어지며, 도시 전체의 청결과 질서를 상시 유지하는 생활 문화 정착

[그림 2] 한산한 키갈리 중심지 모습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전 키갈리 중심지가 한산한 모습. 모두가 도시환경 정비에 매진하기에 상점도 오전에는 열지 않는다.

- 라디오 방송, 마을 확산기, 마을 리더를 통해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 가동(모바일 메신저 등 보조 수단 활용)
- 도시 내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서비스 공동 생산 실현
 - 도로·배수로 정비, 쓰레기 수거, 공공시설 보수 등 행정 중심의 인프라 관리를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 패러다임 구현
 - 장비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하천 변, 비공식 정착지 등을 주민이 직접 수작업으로 정비하여 도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 절감 기여
- 실질적인 ‘공간 복지’와 주민 돌봄의 구체적 실행
 -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의 지붕 보수, 담장 도색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실천적 복지 활동 수행
 - 파손된 보행로 보수, 배수로 준설, 비탈면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를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즉각 조치하는 일상적 공간 복지 실천
- 작업과 소통이 결합된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
 - 활동 직후 현장에서 개최되는 마을 회의를 통해 작업 성과를 공유하고 치안, 보건, 교육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치 플랫폼으로 기능
 - 차기 과제 선정, 행정 건의 사항 수립, 정부 정책 안내 등을 수행하며 물리적 정비(작업)와 의제 설정(소통)을 하나의 정례 과정으로 결합

사회적 의미: 현대 도시의 고립 방지와 공동 책임·자조 정신 구현

- ‘도시 시민’에서 ‘공동 관리자’로 시민 인식 전환
 - 주민 참여형 공공공간 관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서 도시를 함께 돌보는 ‘공동 관리자’로 시민의 역할 재정립
 - 공동 작업을 통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로 도시 내 갈등 완화 및 비공식 사회 안전망 구축 기여
- 현대 도시의 고립·단절 문제에 대한 대응
 - 유입 인구가 많은 수도 키갈리에서 주민 간 관계를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장으로 작동
 - 공공공간 관리와 지역 의제 논의 경험을 통해 ‘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과 공동 책임감을 고취하며 도시 회복력(resilience) 제고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선진 인프라 위에 ‘돌봄 문화’와 ‘관계’ 더하기

- 고립된 개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자본’·도시 네트워크 강화

[그림 3] 비교적 덜 정비된 키갈리의 도로 모습



우무간다를 통해 도시 내 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 키갈리의 목표

-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이웃 단절로 개인이 공간 속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 가까움
- 우무간다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엮어 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행정구역(자치구·동) 단위를 넘어 청년·직장인·상인·돌봄 종사자 등 직능·관심사별 도시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하는 모델을 구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청년 우무간다(청년·청소년 중심의 골목·공원 돌봄 모임), 상권 우무간다(상인·직장인 중심 거리 관리 모임), 돌봄 우무간다(돌봄·복지 관련 직능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보행 개선 활동) 등 주제별 모형이 있음
- ◎ ‘정원도시·보행일상권’ 정책의 사회적 기반 확장
 - 현재 서울의 정원도시·보행일상권 정책은 정원·보행로 ‘조성’에 초점을 두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가, 어떤 네트워크로 이 공간을 돌볼 것인가가 관건
 - 우무간다식 정례 모임을 생활권 정원·골목 쉼터·보행축에 결합하면, 단순한 주민 자원봉사 수준을 넘어 청년·직장인·소상공인·돌봄 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 관리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간 복지+직능 참여 결합
 - 취약계층의 주거·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지역 복지기관·돌봄 종사자·시민단체·기업 봉사단 등 다양한 직능 네트워크를 함께 참여시키는 구조를 설계하면, 우무

간다식 공간 복지가 서울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

- 이는 '자치구 단위 행사'를 넘어 도시 전체에 촘촘한 주제별·세대별·직능별 네트워크를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서울형 우무간다 네트워크'의 구조와 효과를 연구·제안할 수 있음

Malonza, J., 2021, "Celebrating a Revamped Kigali Car Free Zone: Imbuga City Walk," Centre for Sustainable, Healthy and Learning Cities and Neighbourhoods(SHLC).

Urbanet, 2024, "Car-free Urban Spaces: Kigali's Imbuga City Walk", Urbanet – Cities in Focus.

UrbanShift, 2023, "Kigali, Rwanda: Imbuga City Walk Car-Free Zone", UrbanShift / Shift Cities, UN Environment Programme.

Rwanda Virtual Tours, 2021, "Imbuga City Walk: Kigali's Car-Free Green Space", Rwanda Virtual Tours.

The New Times Rwanda, 2022, June 30., "City of Kigali to Invest Rwf600m in Extending Imbuga City Walk", The New Times Rwanda / Africa Press.

One More Adventure Safaris, 2024, "Kigali Car Free Zone – Imbuga City Walk", One More Adventure Safaris.

World Urban Campaign, 2023, "(Re)thinking Car-Free Urban Spaces: Kigali's Imbuga City Walk", World Urban Campaign.

Njeru, J. & Kinoshita, I., 2025, "The Influence of Landscape Functions and Place Type on Place Attachment: A Case of Kigali City's Car-free Zone."

Journal of Urban Design and Mental Health (online ahead of print), Taylor & Francis Online.

City of Kigali, 2020, Kigali Master Plan 2050 – Implementation Plan. City of Kigali.

GoMetro, UN-Habitat, Wuppertal Institute, UEMI, 2022, Africa Urban Mobility Observatory – Kigali Action Plan, High Volume Transport (HVT) Applied Research Programme.

National Bank of Rwanda, 2026, "Exchange Rate." National Bank of Rwanda.

New Times Rwanda, 2021, "VIDEO: Explore the New Imbuga City Walk", The New Times Rwanda.

JTBC, 2025, 「특파원 25시-르완다 편」 방송 자료.

나무뉴스, 2025, Feb 27.,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르완다, 韓 새마을 운동 벤치마킹했다고?(특파원 25시)".

마싸나 정원에 장애 아동 위한 포용적 공원 착공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진광선 통신원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030 바르셀로나 공공공간의 놀이 계획'을 기반으로 마싸나 정원 (jardins de massana)에 도시 최초의 100% 포용적 공원을 조성

2030 바르셀로나 놀이 계획과 포용성 강화 목표

- ◎ 2030 바르셀로나 공공공간의 놀이 계획(Pla de joc a l'espai public de barcelona amb horitzo 2030) 수립
 - 바르셀로나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복지·건강·공동체 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놀이와 신체 활동의 기회 개선과 다양화를 목표로 2019년 2월에 이 계획을 수립
 - 이 계획을 통해 도시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접근성이 좋고 포용적인 놀이 공간을 갖춘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놀이터가 있는 도시에서 진정으로 놀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
 - 도시 계획 활동(미시적 개입과 전술적 도시 계획부터 대규모 도시 변혁까지 포함)과 사회적 활동(이동식 워크숍부터 새로운 공공 서비스 개념까지 포함)을 통합적·포괄적인 관점에서 결합한 63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
 - 놀이 공간 설계를 위한 7가지 품질 기준
 -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놀이 활동 제안
 - 다양하고 자극적이며 다용도적이고 연결성이 뛰어난 접근 가능한 물리적 공간
 - 모든 연령, 성별, 출신, 능력을 포용하는 놀이 공간
 - 자연과의 접촉, 녹지공간·물·모래와 같은 자연 요소를 활용한 놀이
 - 세대 간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놀이 환경
 - 공동체 모임과 소통을 위한 공간
 - 놀이 생태계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 조성

■ 놀이 계획의 10가지 주요 목표¹

-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놀이 공간을 2배로 확대
 - 면적이 50m² 미만이거나 충분한 놀이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놀이 공간은 줄이거나 없애도록 조치
 - 물장구를 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10곳 만들고 모래놀이 공간을 확대
 - 10대와 청년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양한 놀이 시설을 통해 놀이 대상을 확대: 10개의 도심 스포츠 공원, 20개의 집라인(zip line), 15개의 대형 미끄럼틀, 20개의 놀이기구 조성
 - 함께하는 놀이와 협력적인 놀이, 야외 단체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놀이 시설의 50%를 함께하는 놀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며 탁구대 250개와 농구 골대 150개를 설치
 - 장애인을 위한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개보수되는 모든 공간이 포용성 인증 획득하도록 보장
 - 놀이터의 40%와 녹지공간의 90%에는 식수대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의 20%에는 공용 세면대를 설치하며, 공원과 정원의 75%에는 피크닉 테이블 등 편의 시설을 설치
 - 공립학교의 60%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터(최소 120개)를 갖추도록 보장
 - 약 100개 학교의 환경을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 도시의 아동과 청소년의 좌식 생활을 줄이고 야외 활동을 장려하여 신체 활동 부족률을 낮추고, 하루도 야외에서 놀지 않는 아동의 비율을 15% 미만으로 감소
- ‘마사나 정원에 바르셀로나 최초의 포용적 공원 건설(Construyamos el primer parque inclusivo de Barcelona en los jardines de Massana)’ 프로젝트

1 놀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촉진하는 10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정의

- ‘공놀이 금지’ 표지판 제거
- 오브리프 까렐(Obrim Carrers): 주말에 시내 여러 도로 구간을 차량 통제해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활용
- ‘우리는 광장에서 놀아요’: 광장을 교육 및 공동체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
- 토요일 오후 거리와 광장에서 청소년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놀이 활동을 우선으로 장려
- 도시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성평등, 녹지, 그리고 공동체 놀이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 ‘우리는 학교를 보호합니다’: 각 학교 입구에 광장을 조성
- 더 많은 물놀이와 모래놀이 공간 조성
- 독창적인 놀이 공간과 새로운 도심 스포츠 공원을 조성
- 놀이 공간에 화장실과 놀이기구 대여 시설을 갖춘 가판대 설치
- 장애 아동의 놀이 활동 지원

- 시민 활동가 ‘아나 모우렐로(Ana Mourelo)’씨가 바르셀로나시의 디지털 참여 플랫폼 데씨딴(Decidim)을 통해 제안한 사업이 산 안드레우 지역 시민 참여형 예산 편성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장애 아동을 위한 도시 최초의 100% 포용적 공원 조성으로 이어짐
- 마싸나 정원(Jardins de Massana)은 1953년 바르셀로나 성체 대회 이후 건설된 산 안드레우 지구의 칸 마싸나(Can Massana) 주택단지 내부에 조성된 공간으로, 정원 도시 프로젝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음. 현재는 지역 주민에게 녹지를 제공하며 주변 주택의 공용 공간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포용적 놀이 공간 조성의 목표

- ◎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능력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놀이 공간 조성
- ◎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모두가 놀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놀이기구와 활동 제공
- ◎ 모든 어린이에게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동반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더욱 포용적이고 놀이가 즐거운 도시 만들자는 취지
- ◎ 2030 바르셀로나 공공공간의 놀이 계획 목표 중 하나인 ‘장애인을 위한 놀이 기회 확대’

프로젝트 내용

- ◎ 마싸나 정원 재개발 프로젝트에 시민 참여 과정을 거쳐 약 150만 유로의 예산 편성
- ◎ 접근성과 연결성 개선을 위해 기존 장애물 제거
 - 마싸나 정원은 약 2,360m² 면적의 십자형 정원으로, 양쪽에 작은 광장 두 개와 중앙에 광장 하나가 있음. 이번 재개발 사업은 정원 중앙 구역에 집중해 진행하고 양쪽 측면 공간은 기존 형태 유지
 - 현재 중앙 영역은 중심축과 여러 보조 통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역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배치되어 있음
 - 다양한 여가 활동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좋은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재와 경계는 최소화함
- ◎ 공원에 있는 기존 놀이기구 개보수와 공간 개선
 - 두 구역은 기존 자갈 표면을 그대로 유지
 - 고무 포장재와 안정화된 자갈로 마감된 다섯 구역에는 그네 타기, 미끄럼틀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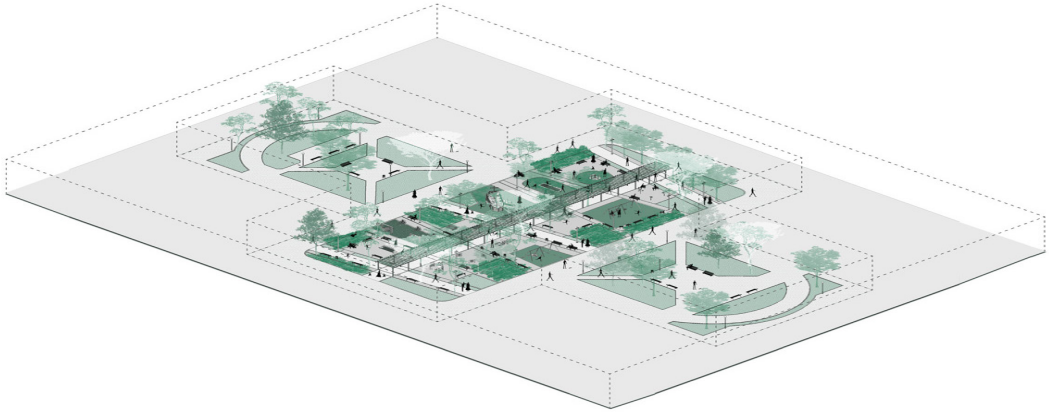
[그림 1] 마싸나 정원 예상도



출처: IF Arquitectos

- 오르기, 균형 잡기, 점프하기 등의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 한 구역은 체험 활동을 위한 모래밭으로 조성
 - 나머지 구역은 안정화된 자갈(sablon estabilizado)로 마감하여 만남·휴식·역할극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작은 통로는 포장석을 제거하고 넓은 화단을 조성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환
 - 주요 통로와 보조 통로는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연결하는 역할
- 공원의 조명과 공원 시설 개선
 - 휴식 공간은 돌레를 따라 연속적으로 벤치를 배치하고 활동 매트와 연결된 분산형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접근성 개선
 - 기존 벤치를 재사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새로운 벤치를 추가
 - 공원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추가
 - 쓰레기통은 현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운 놀이 시설에 맞춰 위치를 조정
- 마싸나 지구 건물 공간 변혁의 첫 단계
 - 마싸나 정원 재개발 프로젝트는 칸 마싸나 주거단지 변혁을 향한 첫걸음이며, 지난해 5월 승인된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블록의 370여 가구 중 일부에 발코니 설치 예정
 - 기존 건물의 외관을 복원·보존하고 화장실과 실내 테라스를 개선하며 건물 외관과 지붕에는 단열재를 설치

[그림 2] 마싸나 정원 조성 계획



출처: IF Arquitectos

-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악화된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

시사점

- ◎ 마싸나 정원의 포용적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시는 2024년부터 약 20개 놀이터의 재단장 사업을 진행함. 2025년까지는 시민의 90%가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 2026년 1월 현재 바르셀로나에는 약 900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그중 140개는 다양한 수준의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이고, 21개는 시의회의 완전 접근 가능 기준을 충족
- ◎ 2030 바르셀로나 공공공간의 놀이 계획은 400명이 넘는 전문가, 단체,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한 다분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더블린과 런던 등 다른 도시의 선구적인 놀이 계획에서 영감을 받아 수립된 계획
- ◎ 동시에 이 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의 특정 인권인 놀이의 권리를 증진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부응
- ◎ 놀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의 측면을 개선하여 포용적인 놀이 공간을 만들려는 이러한 노력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https://www.parquesinfantilesinclusivos.es/barcelona-licita-el-primer-parque-100-inclusivo-para-ninos-con-necesidades-especial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24/07/08/comencen-les-obres-de-la-nova-area-de-joc-infantil-accessible-als-jardins-de-massana/>
<https://ajuntament.barcelona.cat/instituturbanisme/es/jardins-de-massana> <https://www.ifarquitectos.com/jardins-de-massana/>
https://metropoliabierta.lespanol.com/vivir-en-barcelona/20240103/el-primer-parque-inclusivo-de-barcelona-se-construira-en-el-congres/822167864_0.html
<https://ajuntament.barcelona.cat/accessible/es/areas-de-juego-accessible#:~:text=Esta%20galer%C3%ADa%20muestra%20un%20elemento,el%20elemento%20que%20deseas%20visualizar.&text=Barcelona%20dispone%20de%20m%C3%A1s%20de,hacer%20los%20espacios%20m%C3%A1s%20comprensibl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ca/que-fem-i-per-que/espai-public-de-qualitat/barcelona-dona-molt-de-joc>
<https://bcnroc.ajuntament.barcelona.cat/jspui/handle/11703/113764>
<https://es.slideshare.net/slideshow/mesura-de-govern-bcn-dona-molt-de-joc/88610045>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sites/default/files/PladelJocHoritzo2030_Resum_CA.pdf
https://www.decidim.barcelona/processes/PressupostosParticipatius/f/4517/budgets/11/projects/241?included_in=Z2lkOi8vZGVjaWRpbS1iYXJjZWxvbmEvRGVjaWRpbTo6QWNjb3VudGFiaWxpdk60Jlcl3VsdC8xMTE1Nw
https://www.decidim.barcelona/processes/PressupostosParticipatius/f/4422/proposals/28861?included_in=Z2lkOi8vZGVjaWRpbS1iYXJjZWxvbmEvRGVjaWRpbTo6QnVkZ2V0czo6UHJvamVjdC8yNDE
<https://ajuntament.barcelona.cat/accessible/ca/actualitat/noticies/inaugurem-el-parc-infantil-del-projecte-construim-el-primer-parc-inclusiu-a-barcelona-als-jardins-de-massana-dels-pessupostos-participatius-1500262>

기후 회복력과 포용성을 결합한 보스턴 워터프런트 공원

미국 보스턴시 | 이경선 통신원

미국 보스턴시 보스턴항 워터프런트에 개장한 마틴스 파크는 모든 능력의 어린이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스턴 최초의 완전 접근가능 공원 및 놀이공간임. 동시에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을 고려해 지형을 높이고 침식 방지 구조를 도입하는 등 기후 회복력을 공원 설계에 반영한 사례임. 도시 공원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줌

기후 회복력과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배경

- ◎ 보스턴시는 보스턴항 워터프런트의 공공 접근성과 개방 공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에 대응할 필요에 직면함
 - ‘클라이밋 레디 보스턴’ 보고서를 통해 워터프런트 지역의 예상 침수 고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설계안으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시장실이 주도한 ‘리질리언스 보스턴 허버’ 계획은 보스턴 전 해안선(약 75.6km)을 대상으로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함

마틴스 파크 조성의 주요 내용

- ◎ 보스턴시는 보스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을 중심으로 사우스 보스턴 워터프런트에 ‘마틴스 파크(Martin’s Park)’를 조성하여 2019년 개장
 - 이 공원은 보스턴시 최초의 완전 접근 가능 놀이공간으로 모든 능력의 어린이와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ADA(미국 장애인법) 기준을 충족하는 창의적 놀이 구조물과 휴식 공간을 포함해 놀이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계획
- ◎ 워터프런트 입지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 회복력을 가진 공원으로 설계
 - 공원 일부 지형을 높여 침수 경로를 차단
 - 미니 파일과 석재로 보강된 식재대를 설치하여 침식과 고조위 해수에 대비

- 중앙 보행로는 중간 지점을 가장 높게 설계해 향후 10년간 인근 지역의 침수 경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
- 초기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상향된 홍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 수행

정책 효과와 사회적 의미

-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기후 회복력을 갖춘 워터프런트 공원으로 조성
- 모든 능력과 연령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원으로, 사회적 접근성과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보스턴시의 정책 방향을 구현한 사례
 - 동시에 폭탄 테러 희생자의 이름과 삶을 기리는 공간으로 시민에게 휴식과 추모, 일상적인 이용이 공존하는 장소로 기능

[그림 1] 마틴스 파크 전경



<https://www.boston.gov/news/martins-park-honored-resiliency-accessibility-and-innovation>

자원순환센터를 어린이 휴식처로, 구이청어린이공원

중국 포산시 | 모종혁 통신원

포산시 난하이구에 위치한 구이청어린이공원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의 상부와 옆 공간을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꾸민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사례임. 어린이를 위한 무동력 테마공원이라는 콘셉트 아래 신체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놀이기구를 배치하여 6개의 구역으로 구성했으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료 개방함.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설계와 평시 관리 시스템, 전 연령층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자원순환센터 위의 어린이천국’이라는 신뢰를 구축함

혐오시설 위에 도시 명소가 된 구이청어린이공원

- ◎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 난하이구에 있는 구이청어린이공원(桂城兒童公園)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의 상부와 옆 공간을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꾸민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사례
 - 동샤오구(東小區) 자원순환센터는 2012년에 문을 연 이래 악취, 소음, 위생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혐오시설의 대명사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음
 - 광둥성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도 최대 제조업 산업단지를 보유함. 1인당 GDP가 2014년에 이미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1년에는 1만 5,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중국 평균 1인당 GDP보다 훨씬 높음
- ◎ 2023년부터 포산시정부는 동샤오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여가 공간을 결합하는 혁신적 재생 모델을 채택
 - 포산시정부는 “혐오시설은 반드시 숨겨야 하는가, 아니면 도시 기반시설로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난하이구의 부족한 어린이 전문 놀이·활동 공간을 자원순환센터 건물의 상부와 옆 공간에 마련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도시 기반시설의 기능적 고도화, 건물 상부와 옆 공간의 공공성 회복, 어린이를 위한 무동력 놀이기구 설치, 환경교육과 일상 경험의 결합 등의 원칙을 정

하고, 자원순환센터의 기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부 및 옆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의 가치를 재정립함

자원순환센터 상부와 옆 공간을 어린이공원으로 꾸민 전략

- 포산시정부는 동사오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개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업구역과 경관·활동구역으로 분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 작업구역에는 하루 최대 3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설계함
 - 작업구역인 건물의 상부와 옆 공간은 시민에게 상시 개방된 공원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배치함
- 작업구역: 첨단 시설로 무장한 자원순환센터로의 탈바꿈
 - 작업구역은 높이 10.6m의 단층 건물로, 내부에는 첨단 이동식 밀폐형 쓰레기 압축 장비, 3만m² 규모의 부압식²² 탈취설비, 침출수²³를 전량 수집하여 외부로 처리하는 장치, 무인 계량 및 전자동 수거 시스템 등을 갖추어 악취, 소음, 오염수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 이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로 변신함

[그림 1] 개조사업을 통해 첨단 시설로 탈바꿈한 동사오구 자원순환센터



출처: 포산시 난하이구정부

22 부압식(負壓式)은 대기압(大氣壓)보다 낮은 압력 방식을 가리킴

23 침출수(浸出水)는 생활쓰레기나 공업폐기물이 지하나 폐쇄된 공간에서 썩어 고였다가 흘러나오는 물을 가리킴

- ◎ 경관 및 활동구역: 전면적인 공공화를 부여
 - 경관 및 활동구역은 어린이를 위한 무동력 테마공원이라는 콘셉트 아래 신체 움직임에 따라 작동하는 놀이기구를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구역으로 구성함
 - 열린 휴식장: 개방된 광장 및 휴식 공간으로 접근성 강화
 - 얇은 물놀이장: 음악분수, 물놀이 기구를 통한 차별성 강화
 - 무지개 활력장: 21m의 무지개 슬라이드, 모래놀이를 통한 활력성 강화
 - 숲속 확장터: 해적선 클라이밍, 공중 네트, 트램폴린(trampoline)을 통한 모험성 강화
 - 습지 과학장: 생태섬과 목재 데크를 통한 교육성 강화
 - 다채 운동장: 농구장, 스케이트보드장, 밸런스 바이크 트랙 등 스포츠성 강화

[그림 2] 자원순환센터 상부와 옆 공간에 조성한 구이청어린이공원



출처: 평파이신문

지속가능한 공원 재생 프로젝트로서의 의의

- ◎ 2025년 9월에 완성된 구이청어린이공원은 단순히 놀이시설이 많은 공원이 아니라 환경과 자원순환의 목표를 담아 일상적 놀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
 - 공원이 자원순환센터 상부와 옆에 있어 '도시가 어떻게 자원을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함
 - 1년 내내 무료 개방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설계와 평시 관리 시스템, 전 연령층을 고려한 공간 구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공원이라는 신뢰

를 구축함

- 구이청어린이공원은 주변 주민뿐 아니라 포산시 시민과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주목하는 특색 있는 공공공간으로 재생됨
 - 개원 이후 구이청어린이공원은 중국 SNS와 영상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소개되면서 ‘자원순환센터 위의 어린이천국’, ‘가장 깨끗한 자원순환센터’ ‘아이와 함께 꼭 가야 하는 공원’ 등으로 명성을 얻음
 - 운영 주체인 등샤오구 자원순환센터는 구이청어린이공원 전체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 쇼를 선보이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음



<https://thirdpage.thepaper.cn/h5/jrtt/31522372>
<https://static.nfnews.com/content/202411/12/c10245088.html>
<https://news.qq.com/rain/a/20240924A04AID00>
<https://baike.baidu.com/item/桂城儿童公园>

지역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공원

인도 델리 NCT | 박원빈 통신원

델리 NCT 정부는 도심 내 6개의 녹지공간을 생물다양성 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공공복지 기능을 결합한 생태계 공간을 조성 중. 이들 공원은 토착 동식물과 자연환경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친환경 탐방로와 생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녹지 개발 정책의 출발점

- ◎ 델리는 수도권 과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발생한 대기오염, 도시열섬 효과 등 환경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에 관한 관심이 확대됨
 - 델리 수도권은 도로변, 중앙분리대, 폐발전소 부지, 매립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18,000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며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함
- ◎ 도심 내 공원은 주민들에게 단순 녹지공간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 증진, 도시경관 개선 등 공공복지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델리 NCT 정부는 도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녹지 개발을 정책과제로 설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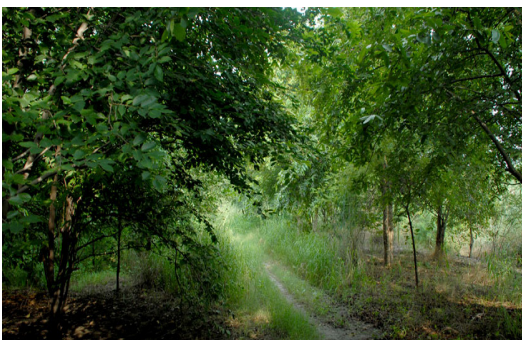
- ◎ 델리 NCT 정부의 중요 도심 녹지정책은 도심 곳곳에 소규모 생활녹지를 폭넓게 제공하는 한편, 델리개발청(Delhi Development Authority)이 주도하여 도심 내 핵심 자연 6개 공간을 생물다양성 공원(Biodiversity Parks)으로 지정한 것이 특징
 - 야무나(Yamuna)강과 아라발리(Aravalli) 고지대를 생물다양성 공원으로 우선 개발 완료한 이후, 카믈라 네루(Kamla Nehru) 능선, 킬파트(Tilpath) 계곡, 넬라 하우스(Neela Hauz), 투글라카바드(Tughlaqabad) 지구를 추가로 지정
- ◎ 생물다양성 공원의 목적은 강가, 능선, 습지 등 기존의 자연공간을 도심 공원으로 활용하되 단순 조경·휴식 기능을 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 기능을 보호하고 토착 생물종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심 공원과 차별화

- 대표 사례인 야무나 생물다양성 공원은 과거 훼손된 자연공간을 14년에 걸쳐 산림 군락과 자연습지로 복원하였고 토착 동식물의 서식지로 재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상 방문지 및 청소년 생태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음
 - 공원은 연중 주 6일(월~토) 운영되며 내부는 방문자 이용 구역과 자연보호 구역으로 구획되어 생태 보전과 시민 이용 간 균형을 유지
 - 자연 탐방로를 따라 식물 보존구역, 허브공원, 철새 서식지, 자연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 공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탐방 과정에서 토끼 등 소형 야생동물, 철새, 나비 온실 등 다양한 생태 요소를 접할 수 있도록 설계
 - 특히 과일나무 군락·대나무 숲·종교적 의미를 지닌 수목 군락·나비군락지 등 주제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공원의 체험 요소를 강화하고 탐방로 곳곳에는 나무와 덩굴식물 등을 활용한 친환경 휴식 공간도 조성
 - 생물다양성 기본 개념과 생태계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주요 방문 지점에는 자연생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각자료·패널·교육자료 등을 자연 해설센터에 추가해 청소년 중심 생태교육 인프라를 구축
 - 출입이 제한된 약 130에이커 규모의 자연보호 구역을 별도로 운영. 공원 전체에는 20여 개 이상의 생물군집이 형성하여 약 2,000종의 식물·동물이 서식 중이며 계절별로 5,000마리 이상의 철새가 관찰되는 등 자연 생태계 복원이 진행 중임

도시 생태공간의 복합적 기능

- 델리의 생물다양성 공원은 해당 구역 내 약 50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포함하여 철새 등 조류에게 계절별로 서식지를 제공함. 이외에도 홍수 방지, 대기오염 완화, 기후 개

[사진 1] 야무나공원 자연탐방로



[사진 2] 야무나공원 생태계 현장체험



출처: 델리 생물다양성 공원 웹사이트

- 선, 생태관광, 공공복지 확대 등 도시 생태공간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함
- ◎ 지역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관리되고 있음. 기존 도심 녹지공간의 기능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도심 생태계 복원과 세대 통합적 자연환경 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지님



<https://www.delhibiodiversityparks.org/index.html>

도시 한복판의 작은 농장, 시립 텃밭 네트워크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진광선 통신원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15개의 시립 텃밭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개인과 단체에게 배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시립 텃밭 네트워크(XHM, Xarxa d’Horts Municipals)’ 프로그램을 운영

시립 텃밭 네트워크의 시작과 역사

-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텃밭을 구획으로 나누어 시민들에게 배정하는 ‘시립 텃밭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1997년 칸 메스트레스 채소밭(Els Horts de Can Mestres)에서 시작
-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운영된 채소밭은 1986년 그라시아 지구의 아비 텃밭(L’Hort de l’Avi)으로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성
- 유기농법 원칙을 준수하며 채소를 재배하는 활동을 통해 노년층이나 특정 요구를 가진 집단이 사회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참여 확대와 운영 방식

- 바르셀로나 도시 내 10개 구역에 걸쳐 위치한 15개의 시립 텃밭
 - 바르셀로나의 15개 시립 텃밭은 20~40m² 크기의 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필지는 65세 이상의 은퇴자와 시립 단체에 배정됨
 - 해당 텃밭 이용은 바르셀로나 시립 공원 및 정원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시 텃밭 개인 사용 허가 신청 공모를 통해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부지는 추첨을 통해 배정되며 단체를 위한 부지는 경쟁을 통해 배정
 - 일부 텃밭에는 채소밭 외에도 가축을 기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전형적인 카탈루냐 농가의 전원생활을 시민들에게 가까이 보여 주며, 주말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가이드 투어도 제공됨
- 개인 참가자의 참여 조건
 - 65세 이상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텃밭 구획이 위치한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그림 1] 바르셀로나 시립 텃밭 네트워크에 구획을 배정받은 시민들이 텃밭을 관리하는 모습



출처: 바르셀로나 시청 홈페이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주소지당 한 명만 등록 가능하며 농업 노동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보유해야 함
-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 및 기타 채무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 이전에 도시 정원 네트워크에 텃밭을 소유했던 시민도 재참가할 수 있음. 이전에 텃밭을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에게 먼저 텃밭이 배정되며, 이후에 재참가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명단 순서대로 배정됨

◎ 법인의 참여 조건

- 비영리 단체로 구성
- 본사가 신청된 부지가 속한 도시 정원 지역에 위치해야 함
- 해당 텃밭 구획은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정되며 10월부터 5월까지 매주 최소 6명이 참여하도록 보장
- 해당 기관은 경작지 사업을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
- 시설과 이용자를 보장하는 책임 보험 및 사고 보험에 가입 필수

◎ 도시 텃밭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농업 장려

- 생물 다양성 증가: 텃밭 주변에 야생 식물을 심어 수분 곤충을 유인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고 해충을 방제하는 천적 곤충도 증가

- 생태적 병해충 방제: 유익한 동식물로 이루어진 잘 조성된 생태계 또는 천연 제품을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
- 파종 일정: 도시 기후에 맞춘 노지 재배를 통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채소 재배 가능
- 조합 및 윤작: 조합을 통해 서로에게 이로운 다양한 채소 재배를 장려하며 계절마다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는 윤작이 가능
- 친환경적인 토양 비료: 개인 또는 공동 퇴비통에서 생산된 퇴비를 우선 사용하며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도 실천
- 조화로운 공존: 공동체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단체,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존중과 연대가 중요

도시 텃밭의 가치와 확장 프로그램

○ 도시 텃밭의 사회적 가치

- 도시 텃밭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생태사회적 가치를 지님
- 도시 텃밭은 도시 환경에 크게 기여하며 정원과 생물 다양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공 녹지공간으로 기능함

○ 도시 정원의 교육적 가치

- 학교 대상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농업 세계와 유기농업 원리 학습 가능
- 도시 텃밭 활동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리고 사회적 소외 위험에 처한 계층 간의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세대 간 교류를 증진

○ 바르셀로나시의 추가 프로그램

- 도시 텃밭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외에도 ‘만스 알 베르드(Mans al Verd)’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 중
 -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비영리 단체·협회·재단에 이관하여 과수원·정원·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 지역의 가로수 그루터기 주변의 포장되지 않은 공간을 시민에게 배정해 직접 묘목을 심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비영리 단체가 도시의 공공녹지공간의 화단과 화분을 공동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됨

<https://ajuntament.barcelona.cat/espaisverds/ca/participa-hi/mans-al-verd/xarxa-dhorts-municipals>

https://ajuntament.barcelona.cat/espaisverds/sites/default/files/2024-10/Triptic_XarxaHortsUrban_CAT.pdf

<https://ajuntament.barcelona.cat/espaisverds/ca/participa-hi/mans-al-verd>

민관 협력으로 조성한 도심 공원 놀이터

행사 중심 공원의 한계와 재생 필요성

- ◎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마거릿 T. 한스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13.2헥타르 규모의 공원이지만 대규모 행사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피닉스시는 도심 활성화와 주민 유입, 문화적 거점 형성을 위해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함
- ◎ 장기적인 공원 재생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시민들에게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초기 성과를 위해 지역 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피에스타 보울 플레이 놀이터 조성

- ◎ 미국 대학 미식축구 주요 포스트시즌 경기인 '피에스타 보울'을 운영하는 단체가 2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놀이터 조성을 지원
 - 피닉스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한스 공원 컨서번시, 피닉스시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이 참여해 공공-민간 협력 구조를 통해 사업 추진
- ◎ 공원 서측에 1,860m² 규모의 '피에스타 보울 플레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2020년 공식 개장



- 놀이터는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래놀이터, 클라이밍 구조물, 물놀이, 대형 놀이 조형물 등이 설치됨
- 총 8,600만 달러 규모의 1단계 공원 재생 사업 중 일부로, 이후 물놀이 시설, 그늘 구조물, 나무 군락, 정원, 레스토랑 등으로 확장될 계획

— 이경선 통신원



<https://dtphx.org/post/hance-park-revitalization-project-fieta-bowl-funds-2m-playground>
<https://dtphx.org/post/fiesta-bowl-play-officially-opens-at-margaret-t-hance-park-1>

도시 기억을 담은 노후 놀이터 조형물의 재생

뉴욕시 놀이 동물 조형물의 철거와 보존 논의

- ◎ 뉴욕시 공원의 콘크리트 놀이용 동물 조형물은 1980~1990년대 설치되었으나 최근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철거·폐기되는 사례 증가
- ◎ 뉴욕시 공원국(NYC Parks)은 이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시민들의 기억과 도시 공원의 역사를 보여 주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보존·재배치할 필요성을 제기, 시민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계획

다시 시민을 만날 공간 조성,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 ◎ 이러한 취지 아래 퀸즈의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Flushing Meadows Corona Park)’에 은퇴한 놀이 동물 조형물 전용 공간인 ‘은퇴한 놀이 동물의 집(Home for Retired Playground Animals)’을 조성해 2023년 개장
- ◎ 코끼리, 낙타, 개구리, 돌고래 등 총 6점의 조형물을 도시 전역에서 옮겨와 재도색이나 보수 없이 전시하여 실제 사용의 흔적과 시간을 그대로 드러냄
- ◎ 벤치와 조경, ADA 기준의 보행로를 함께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

— 이경선 통신원



<https://www.nycgovparks.org/news/press-releases?id=22102>

<https://www.nycgovparks.org/news/press-releases?id=21849>

세계도시정책동향

596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ISSN 2586-5102

발행일 2026년 1월 26일

디자인 박진범

인쇄·제본 경성문화사

세계도시정책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세계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시 정책 전문가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세계도시정책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 * 세계도시정책동향은 세계도시동향의 발간 취지를 이어받으면서도
새롭고 한층 심도 있게 개편한 서울연구원 정기간행물의 새 이름입니다.